

# 《三國演義》에 나오는 막대형 타격 형구와 병기에 관하여\*

홍윤기\*\*

## <目 次>

1. 서론
2. 막대형 타격 형구와 병기의 분류와 종류
  - 1) 편(鞭)
  - 2) 간(鋼)
  - 3) 장(杖)
  - 4) 정(挺)
  - 5) 봉(棒)
  - 6) 곤(棍)
  - 7) 오(吾)
  - 8) 저(杵)
3. 결론

## 1. 서론

본고는 소설 《三國演義》에 나오는 타격병기 가운데 막대형 형구와 병기와 관련된 묘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를 위하여 막대형 형구와 병기를 형상적, 역사적, 과학적, 군사 전술적, 문화적, 수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삼국연의》에 나오는 여러 막대형 형구와 병기들을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둘째, 《삼국연의》 안에서의 막대형 형구와 병기에 관한 묘사를 살펴보았다. 셋째, 《삼국연의》에 나오는 막대

\* 이 연구는 2013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고전문학 부교수

형 형구와 병기들이, 역사서인 《三國志》에 근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넷째, 막대형 형구와 병기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삼국연의》에 나오는 막대형 형구와 병기들의 길이와 무게 등을 역사 기록과 考古文物資料에 근거하여 조사하였고, 이를 현대의 도량형 단위로 제시하였다.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범위는 毛宗崗本 《삼국연의》의 소설 原文과 毛宗崗의 回評과 短評에 나오는 막대형 형구와 병기에 관한 어휘 모두를 포함한다. 연구 대상은 타격 형구와 병기 가운데 막대형에 국한하며, 망치형 등은 제외하였다. 소설 《삼국연의》에 대한 번역은 소설에 가깝게 번역하였고, 역사 《삼국지》를 비롯한 역사문헌류에 대한 번역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였다.

## 2. 막대형 타격 형구와 병기의 분류와 종류

毛宗崗本 《삼국연의》의 원문과 毛宗崗의 回評과 短評에 나오는 막대형 형구와 병기는 다음과 같다.

편(鞭), 류조편(柳條鞭), 철편(鐵鞭), 강편(鋼鞭), 사릉철간(四楞鐵鋼), 장(杖), 정(挺), 봉(棒), 오색봉(五色棒), 철봉(鐵棒), 대봉(大棒), 등봉(鎧棒), 곤(棍), 대곤(大棍), 금오(金吾), 저(杵).

### 1) 편(鞭)

《삼국연의》에서 편(鞭)은 말채찍<sup>1)</sup>, 형구, 병기로서 3종류가 나오는데, 본고에

1) 《삼국연의》에서 말채찍은 마편(馬鞭), 금편(金鞭), 장편(長鞭)으로 나온다.

① 마편(馬鞭): 제55회: “유비는 더욱 채찍을 휘두르며 고삐를 풀어 말을 내달렸다. (玄德加鞭縱轡)” 말채찍이다. 한편, 《삼국연의》에서 말채찍은 군사 신호용으로도 쓰이기도 하였고, 적을 겨냥하며 저주를 퍼부를 때도 자주 쓰였다. 예를 들어, 제83회에 ‘(유비가) 말채찍으로 한번 가리키자, 촉(蜀)나라 병사들은 한꺼번에 덮쳐들었다. (用御鞭一指, 蜀兵一齊掩殺過去.)’ 그리고 제33회에 ‘조조가 말을 내어 말채찍으로 원담을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操出馬以鞭指譚而罵曰)’가 그것이다.

② 금편(金鞭): 제34회: “말발굽 침범침범 내딛으니 시내 물은 푸른 유리알처럼 부서지고,

서는 형구와 병기만 살펴보기로 한다.

1-1) 형구 【채찍 또는 매 - 편(鞭)】

형구로 쓰이는 편(鞭)에는 재질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가죽 채찍이고, 하나는 가는 막대인 매이다.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제14회: 유비가 장비에게 하는 말로, “너는 첫째로 술만 마셨다하면 사나워져서, 사졸들을 채찍질하기 일쑤요, …… .<sup>2)</sup>

제81회: (장비는) 이들(范疆과 張達)의 등줄기를 채찍으로 저마다 50대씩 후려쳤다.<sup>3)</sup>

② 정의

길쭉한 가죽 채찍 또는 매 따위의 때리는 형구이다.

③ 전적에 나오는 형구 편(鞭)

先秦시기부터, 편(鞭)은 形具로 쓰였다.

《尚書·舜典》: (순임금께서는) 채찍(鞭)으로 때리는 것을 관부(官府)의 형벌로 삼으셨고,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학교의 형벌로 삼으셨고<sup>4)</sup>

바람이 휘익휘익 일어나니 금빛 말채찍을 휘둘러서라네.(馬蹄踏碎青玻璃, 天風響處金鞭揮。)  
금빛 말채찍이다. 이 시는 劉備가 的盧를 타고서 檀溪를 뛰어 건넌 것을 우러르는 시이다. 따라서 시에서의 ‘金鞭’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鐵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저 말채찍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장편(長鞭): 제35회 회평: 앞에서 유비는 넓적다리 살이 자꾸 돌아나자 슬퍼하였는데, 이 얼마나 비장한 느낌을 갖게 하는가. 그런데 유비는 지금 남장(南漳)에 이르러 길에서 목동이 피리를 불며 오는 것을 보더니, “내 꼴이 저 아이만 못하구나!”라는 탄식을 하였다. 갑자기 영웅의 기개가 사라지고 있다. 대저 말발굽 아래는 몹시 위험하지만, 소의 등위는 매우 안전하다. 긴 말채찍은 몹시 다급하지만, 짧은 피리는 매우 느긋하다.(前玄德以脾肉復生而悲, 何其壯也; 今至南漳, 道中見牧童吹笛而來, 乃有吾不如也之歎, 頓使英雄氣盡。蓋馬蹄甚危, 牛背甚穩; 長鞭甚急, 短笛甚閑。) 긴 말채찍이다. 여기에서의 긴 말채찍(長鞭)은 짧은 피리(短笛)와 대구를 이루기 위해 쓴 수사적 표현이다.

2) 제14회: 你一者酒後剛強, 鞭撻士卒 ……

3) 제81회: 各鞭背五十。

4) 《尚書·舜典》: 鞭作官刑, 扑作教刑. 이에 대하여 孔安國의 傳에, “공무(公務)를 맡은 관원을 다스리는 형벌로 쓰이는 것이다.(以作治官事之刑。)”라고 하였다.

《史記·伍子胥傳》: 오나라 군대가 초나라의 수도인 영(郢)에 들어가서, 오자서는 초나라 소왕(昭王)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오자서는 초나라 평왕(平王)의 무덤을 파헤쳐 그의 시신을 꺼내어 300대를 채찍질한 뒤에야 그만두었다.<sup>5)</sup>

《설문해자》에 편(鞭)이 혁부(革部)에 있는 것으로 보아 채찍은 본디 가죽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說文解字·革部》: “채찍은 때리는 것이다.(鞭, 毆也.)”

그러나 문장 안에서는 편(鞭)이 가죽 채찍인지 나무 막대인 매인지는 뚜렷하게 구분 되는 것은 아니다.

#### 1-2) 형구 【버들가지 채찍 - 류조편(柳條鞭)】

#####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제2회에서 장비가 독우(督郵)를 때리는 것에 대한 모종강(毛宗崗)의 단평(短評)에 1번 나온다.

제2회의 단평: 속 시원하게 때리는구나. 독우가 바라던 것은 마늘 모양의 금덩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장비한테 버들가지 채찍(柳條鞭)으로 두들겨 맞게 되었구나.<sup>6)</sup>

##### ② 정의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채찍이다.

##### ③ 《삼국지》의 기록

《삼국연의》 제2회에서, 장비(張飛)는 버들가지를 꺾어다가 채찍으로 삼아 독우(督郵)를 후려친다.

5) 《史記·伍子胥傳》: 吳兵入郢, 伍子胥求昭王。既不得, 乃掘楚平王墓, 出其尸, 鞭之三百, 然後已。

6) 제2회: 打得暢快。督郵所望者蒜條金耳。豈意張公以柳條鞭見贈。

제2회: 독우가 뭐라고 입을 떼기도 전에, 장비는 후다닥 독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독우를 질질 끌고서 관역(館驛)을 빠져나와 곧장 현청 앞의 말 매어두는 말뚝에다가 푹푹 묶어두었다. 그리고는 버들가지를 아래로 당겨 꺾어다가 그의 두 허벅지에다가 힘껏 채찍질 하듯 내리쳤다. 장비가 쉬지 않고 휘둘러대니, 잇달아 버들가지 열댓 가지가 분질러졌다.<sup>7)</sup>

그런데 이 내용은 《삼국지》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다. 살펴보자.

《삼국지·촉서·선주전제2(三國志·蜀書·先主傳第二)》: (郡의) 독우(督郵)가 공적인 일로 안희현(安喜縣)에 왔을 때, (安喜縣의 縣尉로 있던) 선주(先主: 유비)가 만나 뵈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였다. 선주(유비)는 곧바로 안으로 뛰어 들어가 독우를 묶어놓고 대나무 막대기(杖)로 2백대를 때렸다.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관인(官印)의 끈을 풀어서 독우의 목에 걸어두고 독우는 말말뚝에 묶어 놓고 관직을 버리고 달아났다.<sup>8)</sup>

이에 대하여 배송지(裴松之)는 《전략(典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다.

그 뒤로 주(州)와 군(郡)에 황제의 조서가 날아들었는데, 군사적인 공로를 세워서 장리(長吏: 縣의 高官)가 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걸러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유비는 자신이 그 안에 들어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였다. 군(郡)의 독우(督郵)가 현(縣)에 이르렀는데, 유비를 쫓아내는 일을 맡고 있었다. 유비는 평소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 유비는 독우가 여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듣자, 유비는 독우를 만나보려고 하였다. 독우는 아프다고 둘러대면서 유비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유비는 독우한테 원한이 맺혀서, 관서로 되돌아와서는, 구실아치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시 여관으로 갔다. 유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 말하였다. “나는 부군(府君: 郡 太守)께서 몰래 내리신 가르침을 받고 독우를 체포하러 왔다.” 그리고 곧바로 독우가 누워있던 침상으로 달려가 그를 붙잡아 오랏줄로 묶어 현(縣)의 경계까지 끌고 와서 자신의 관인의 인

7) 제2회: 督郵未及開言, 早被張飛揪住頭髮, 扯出館驛, 直到縣前馬椿上縛住, 攀下柳條, 去督郵兩腿上著力鞭打, 一連打折柳條十數枝。

8) 《三國志·蜀書·先主傳第二》: 督郵以公事到縣, 先主求謁, 不通, 直入縛督郵, 杖二百, 解綬繫其頸着馬柳, 棄官亡命。

끈을 풀어 독우의 목에 걸었다. 그리고 독우를 나무에다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대나무 막대기(杖)로 100대 남짓 때리며 독우를 죽이려 하였다.  
독우가 애처롭게 빌자, 그제야 그를 풀어 보내주었다.<sup>9)</sup>

《삼국연의》와 《삼국지》와 《전략》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때린 사람	때린 도구	대 수
三國演義	장비	버들가지	버들가지 열댓가지가 분질러지도록
三國志	유비	대나무 막대기(杖)	200대
典略	유비	대나무 막대기(杖)	100대

독우를 때린 형구로 《삼국지·촉서·선주전제2》는 분명히 장(杖)으로 기록하고 있다. 배송지가 인용하고 있는 《전략》에는 편장(鞭杖)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편장(鞭杖)은 채찍질(鞭)도 하고 막대기질(杖)도 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대나무 막대기(杖)로 때렸다(鞭)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편(鞭)은 동사로써 ‘때리다/매질하다’의 뜻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장(杖)은 어떤 형구인가? 杖에는 지팡이, 막대기, 몽둥이를 비롯한 여러 뜻이 들어 있다. 그렇다면 왜 본고는 장(杖)을 왜 ‘대나무 막대기’로 번역하였는가? 한(漢)나라 때에는 형구(形具)가 형률(刑律)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때리는 태형(笞刑)의 경우 바로 대나무가 형구였기 때문이다.

《漢書·刑法志三》: (前漢) 경제(景帝) ..... 6년(기원전 151년)이 되자, 또 조서를 내리시어 말씀하셨다. “태형(笞刑)을 시행하는 사람은, 때로는 맞는 사람이 이미 죽었어도 태질을 그치지 않는데, 이에 대하여 짐은 무척

9) 《三國志·蜀書·先主傳第二》裴松之注: “《典略》曰: 其後州郡被詔書, 其有軍功爲長吏者, 當沙汰之, 備疑在遣中. 督郵至縣, 當遣備, 備素知之. 聞督郵在傳舍, 備欲求見督郵, 督郵稱疾不肯見備, 備恨之, 因還治, 將吏卒更詣傳舍, 突入門, 言‘我被府君密教收督郵’. 遂就床縛之, 將出到界, 自解其綬以繫督郵頸, 縛之着樹, 鞭杖百餘下, 欲殺之. 督郵求哀, 乃釋去之.”

가슴 아프다. 명령하노니, 이미 있던 태형 300대는 200대로 줄이도록 하고, 태형 200대는 100대로 줄이도록 하라.”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태(笞)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니, 태형의 형구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확정하라.” 승상(丞相)인 유사(劉劭)와 어사대부(御史大夫)인 위관(衛綰)이 법령을 만들어 어떤지를 살펴달라고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태형(笞刑)을 하게 되면, 막대기(箠)의 길이는 5尺(115.5cm)<sup>10)</sup>으로 하고, 그 줄기의 굵기는 1寸(2.31cm)<sup>11)</sup>으로 하고, 대나무로 하고, 꼬트머리는 얇은 두께로 반 촌(1.155cm)으로 하되, 대나무의 (불룩한) 마디는 평평하게 깎습니다. 태질을 받는 자는 그 엉덩이를 맞습니다. 그리고 때리는 사람이 (중도에) 바뀌서는 안 되며, 한 죄인 하나에 대한 태질을 마치고 나서야 때리는 사람도 바꾸도록 합니다.” 이때부터 태질로 맞는 사람은 몸뚱이를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혹한 구실아치들은 그래도 이것으로 백성들을 겁주는 데 썼다. ……<sup>12)</sup>

그렇다면 왜 갑자기 《삼국연의》에 버드나무 가지(柳條)로 만든 채찍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어쩌면 말(馬)을 묶어두는 말뚝을 뜻하는 양(柳)자와 버드나무(柳)자의 생김새가 서로 비슷하여 어쩌다가 벌어진 잘못으로 버드나무로 만든 채찍으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 1-3) 병기 【대나무꼴 쇠막대 - 첩편(鐵鞭)】

#### ① 《삼국연의》의 묘사

제5회에 1번 나온다. 손견(孫堅)이 거느리고 있는 4명의 부장 가운데 둘째 부장인 황개(黃蓋)가 쓰는 병기이다.

제5회: 성은 황(黃)이요, 이름은 개(蓋)로, …… 첩편(鐵鞭)을 쓴다.<sup>13)</sup>

#### ② 정의

10) 서한 1척(尺)=23.1cm, 5尺=5×23.1=115.5cm.

11) 서한 1촌(寸)=2.31cm.

12) 《漢書·刑法志三》: 景帝 ……。至中六年, 又下詔曰: “加笞者, 或至死而笞未畢, 朕甚憐之。其減笞三百曰二百, 笞二百曰一百。” 又曰: “笞者, 所以教之也, 其定箠令。” 丞相劉劭, 御史大夫衛綰請: “笞者, 箠長五尺, 其本大一寸, 其竹也, 末薄半寸, 皆平其節。當笞者笞臂。毋得更人, 畢一罪乃更人。” 自是笞者得全, 然酷吏猶以為威。 ……

13) 제5회: 姓黃, 名蓋, …… 使鐵鞭。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는 쇠막대 병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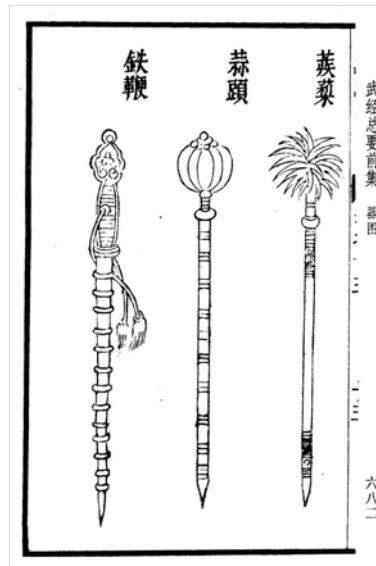
③ 역사 《三國志》의 기록

오대(五代) 때에 나온 병기이므로 후한(後漢)과 삼국(三國) 시기에는 볼 수 없는 무기이다. 따라서 황개가 철편을 썼다는 묘사는 허구이다.

④ 철편의 생김새

송대(宋代) 이후부터 군대에서 철편을 사용하는 것이 점점 늘어났다. 송대(宋代) 증공량(曾公亮) 《무경총요·기도(武經總要·器圖)》에 철편(鐵鞭)이 실려 있는데, 그 생김새가 대나무 마디처럼 생겼다. 이는 철편(鐵鞭)이 대나무 막대(竹鞭)에서 나온 것임을 나타낸다. 그 크기와 길이는 사람의 힘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것이 없다.

宋代《武經總要》: 철편(鐵鞭)과 철간(鐵綱) 2종류가 있다. 편(鞭)은 그 생김새나 크기와 길이는 그것을 쓰는 사람의 힘이 넉넉히 부릴 수 있는지에 따라서 쓴다.<sup>14)</sup>



[그림 1] 맨 왼쪽의 병기가 철편(鐵鞭)이다. 《무경총요전집(武經總要前集)》

청나라 풍운골(馮雲鵬)의 《금석색(金石索)》에, 후량(後梁)의 명장(名將) 왕언장(王彦章)이 사용하였다는 철편(鐵鞭)의 생김새에 관한 묘사가 있다.

《金石索·金索》: 길이는 漢나라 尺으로 6尺 2寸(143.22cm)<sup>15)</sup>을 조금 넘고, 무게는 청나라 저울로 15근(약 9kg)<sup>16)</sup>이며, 무릎 19마디가 있으며, 마디마다 구리줄로 묶었으며, 자루에는 나무를 덮어서 구리로 묶었고,

14) 《武經總要》: 鐵鞭、鐵綱二色。鞭，其形大小長短，隨人力所勝用之。  
 15) 서한 1척(尺)=23.1cm, 6척2촌=6.2×23.1cm=143.22cm.  
 16) 청나라 1근(斤)=596.8g, 15근(斤)=15×596.8=8952g, 약9kg.

자루 끝은 몽둥이처럼 생겼다. 네 면에는 돌리라며 “赤心報國” 네 글자가  
씩어 있다.<sup>17)</sup>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명(明)나라 때 작품인 장비상(張飛  
像)은 철편(鐵鞭)을 들고 있다. 그러나  
장비는 《삼국연의》에서 철편(鐵鞭)을 쓴  
적이 없다.

④ 쓰임새

철갑은 입은 적을 상대하는 무기로 보  
인다.

《송사》에 철편을 쓰는 사람들이 자주  
보인다.

《宋史·王繼勳傳》: 왕계훈(王繼勳)은 힘도 세고 날쌔다. 싸움터에서  
늘 철편(鐵鞭)·철삭(鐵槊)·쇠방망  
이(鐵槁)를 썼기 때문에 부대 안에서  
는 그를 “세 개의 쇠 병기를 가장 잘  
다루는 왕삼철(王三鐵)”이라고 불렀  
다.<sup>18)</sup>

《宋史·呼延贊傳》: “(북송 태종)  
옹희(雍熙) 4년(987년)…… 宋 太宗  
이 그를 불러들여 무예 시범을 보이  
라고 명령하였다. 呼延贊이 군장을  
갖추고서 철편(鐵鞭)을 쥐고서 말을 내달렸다. 철편(鐵鞭)과 대추나무 자  
루로 만든 槊(棗槊)을 휘두르며, 마당 가운데를 서너 바퀴 돌았다.”<sup>19)</sup>



〔그림 2〕 張飛像  
明나라, 故宮博物院. 張飛가 들고 있는 병기가  
鐵鞭이다. 湖北省博物館編.  
《千古英雄: “大三國志展”歸國滙報展》,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2009. 150쪽.

17) 《金石索》: 長漢尺六尺二寸強, 重今秤十五斤, 凡十九節, 每節以銅條束之, 柄飾以木束以銅柄  
端如槌, 四面環列 『赤心報國』 四字。

18) 《宋史·王繼勳傳》: 繼勳有武勇, 在軍陣, 常用鐵鞭、鐵槊、鐵槁, 軍中目爲「王三鐵」。

19) 《宋史·呼延贊傳》: 雍熙四年, …… 召見, 令之作武藝. 贊具裝執鞭馳騎, 揮鐵鞭、棗槊, 旋繞廷  
中數四。

《宋史·王珪傳》：“王珪는 開封 사람이다. 어려서 주먹질을 잘하고 날쌔으며, 말 달리면서 화살을 잘 쏘았고, 쇠공이(鐵杵)와 철편(鐵鞭)을 쓸 수 있었다.”<sup>20)</sup>

《新五代史·安重榮傳》：“안중영은 또한 사람을 시켜서 커다란 철편(鐵鞭)을 만들어서 바치게 하고는, 그 백성들을 속여 말하기를, ‘이 철편은 신이 깃들어 있어서, 사람을 가리키면, 그 사람은 곧 죽는다.’라고 하였다.”<sup>21)</sup>

위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송나라 때 철편(鐵鞭)은 부대 단위로 지급되는 전술 무기로서 성격은 거의 없으며, 주로 무력(武力)을 갖춘 장수가 말을 타고 휘두르며 싸우는 개인 병기로서의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 1-4) 병기 【대나무꼰 강철 쇠막대 - 강편(鋼鞭)】

#####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제110회에 2번 나온다.

제110회: 문양(文鴛)은 나이가 겨우 18살이었는데, 키는 8척(193.6cm)<sup>22)</sup>이 나 되었다. 번듯하게 갑옷을 꿰차 입었고, 허리에는 강편(鋼鞭)을 매달았으며, 창을 치켜들고 말에 올라 멀리 위군(魏軍)의 영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다.<sup>23)</sup>

제110회: 문양은 ..... 곧바로 위(魏)의 장수들이 있는 진 안으로 깃 쳐들어갔다. 그의 강편(鋼鞭)이 치켜 오르는 곳마다, 위의 장수들은 말에서 어지러이 떨어졌고, 저마다 물러났다.<sup>24)</sup>

##### ② 정의

鋼鐵로 만든 쇠막대 병기이다. 문양이 강편을 썼다는 것은 소설적 허구이다.

20) 《宋史·王珪傳》：“王珪, 開封人也。少拳勇, 善騎射, 能用鐵杵、鐵鞭。”

21) 《新五代史·安重榮傳》：又使人爲大鐵鞭以獻, 誑其民曰：「鞭有神, 指人, 人輒死。」

22) 漢末三國 1尺=24.2cm, 8尺=8×24.2cm=193.6cm, 《삼국지》에 문양의 키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23) 제110회: 文鴛年方十八歲, 身長八尺, 全裝慣甲, 腰懸鋼鞭, 綽槍上馬, 遙望魏寨而進。

24) 제110회: 鴛 ..... 直冲入魏將陣中來: 鋼鞭起處, 紛紛落馬, 各各倒退。

## 2) 간(鋼)

### 2-1) 【네 모서리 각진 쇠막대 - 사릉철간(四楞鐵鋼)】

####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제112회에 1번 나온다.

제112회: “蜀의 장수 부침(傅翕)이 몰래 사릉철간(四楞鐵鋼)을 꺼내들고 있다가 …… 이봉(李鵬)의 얼굴을 후려치자, 李鵬의 두 눈알이 튀어나와 말 아래에서 죽었다.”<sup>25)</sup>

#### ② 정의

네 개의 각진 모서리가 있는 쇠막대 타격 병기이다. ‘사릉철간(四楞鐵鋼)’의 룡(楞)은 ‘모서리’라는 뜻이다.

#### ③ 생김새

본디 鐵鞭에서 나왔다. 날이 없고, 뾰족하지 않으며, 사용방법이 鐵鞭과 비슷하다. 宋代에 나온 병기이다.

宋나라 曾公亮의 《武經總要·器圖》: “鐵鞭과 鐵簡 두 종류가 있다. …… 또한 네 개의 모서리를 만든 것도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鐵簡이라고 부른다. 네 개의 모서리가 대나무를 길게 쪼개어 놓은 죽간(竹簡)의 생김새를 닮아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며, 모두 鞭의 종류이다.”<sup>26)</sup>



[그림 3] 宋나라 때의 鐵鋼  
鄭鐵偉, 《古代冷兵器》,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2008.

鋼은 쇠와 동으로 만들며, 모서리가 세 개, 네 개가 보통이지만 이를 넘는 것도

25) 제112회: (傅翕)暗掣四楞鐵鋼在手。……, 向李鵬面門只一鋼, 打得眼珠迸出, 死于馬下。

26) 宋 曾公亮《武經總要·器圖》: “鐵鞭、鐵簡, 兩色。…… 又有作四稜者, 謂之鐵簡, 言方稜似簡形, 皆鞭類也。”

있다. 鋼은 明清 대까지 사용되었다.

淸나라 왕탁(王卓)의 《兵仗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검과 비슷한 것이 철간(鐵鋼)인데, 날이 없으며 네 모서리가 돋아 있는데, 네 모서리가 돋아 있는 것이 수레 굴대(鋼)처럼 생겨서 그 이름이 붙은 것이다.<sup>27)</sup>

④ 《삼국지》의 기록

宋代에 나온 병기이므로, 傅僉이 철간을 썼다는 묘사는 허구이다.

⑤ 그 밖의 역사서의 기록

《宋史·張玉傳》: “張玉은 …… 夏의 병사 3만과 맞닥뜨렸다. 그 가운데 쇠 갑옷을 두른 말을 짓쳐오며 싸움을 걸어오는 놈이 있었다. 張玉은 그저 鐵簡을 쥐고서 나가 싸워 그 머리통과 말을 가지고 왔다. 부대 안에서는 이 때문에 그를 張鐵簡이라고 불렀다.”<sup>28)</sup>

《宋史·任福傳》: “任福이 말하였다. ‘나는 大將으로서 싸움에 졌으니, 그저 죽음으로써 나라의 은혜를 갚을 뿐이다.’ 그는 말을 마치고서, 네 날의 鐵簡을 휘두르며 몸을 빼어 마지막 싸움을 벌였다. 적의 槍에 왼 뺨이 꿰뚫려 숨이 막혀 죽고 말았다.”<sup>29)</sup>

위의 두 기록에 근거하면, 鋼은 두꺼운 갑옷을 두른 기병을 상대할 때, 비교적



[그림 4] 가운데 있는 병기가 철간(鐵簡)이다.  
《무경총요전집(武經總要前集)》

27) 王卓《兵仗記》: 與劍相類者爲鐵鋼, 無刃起四稜, 言方稜似鋼也。

28) 《宋史·張玉傳》: “張玉 …… 遇夏兵三萬, 有馳鐵騎挑戰者, 玉單持鐵簡出門, 取其首及馬, 軍中因號曰張鐵簡。”

29) 《宋史·任福傳》: “福曰: 「吾爲大將, 兵敗, 以死報國爾。」揮四刃鐵簡, 挺身決鬥, 槍中左頰, 絕其喉而死。”

강한 타격을 줄 수 있었으나, 길이가 길면 무게가 더 나가게 되어서 가볍고 긴 창을 쓰는 적에게는 불리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⑥ 타격 효과

明代《武備志》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明代《武備志》: 편(鞭), 간(簡), 가시머리 망치(蒺藜), 마늘머리 망치(蒜頭)는 모두 단병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짧은 것이다. 힘이 센 사람이 사용하고 싶어 한다. 이들 무기를 치켜들고 앞으로 달려 나가면, 적의 삼군(三軍)을 쓰러뜨릴 수 있다. 그 생김새는 비슷비슷하다.<sup>30)</sup>

이를 보면 편(鞭)과 간(簡)<sup>31)</sup>은 명대에 들어서면서 부대단위로 지급되는 전술 병기로서 운용되었던 것 같으며, 그 타격력은 매우 파괴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 장(杖)

《삼국연의》에서 장(杖)은 지팡이<sup>32)</sup>, 형구, 병기로서 3종류가 나오는데, 본고

---

30) 明代《武備志》: 鞭, 簡, 蒺藜, 蒜頭, 皆短兵器中最短者, 以力士求之, 奮揚可前, 足以靡三軍, 其制大同小異。  
 31) 간(簡)은 간(鋼)과 같다.  
 32) 《삼국연의》에 나오는 지팡이로는, 대나무 지팡이인 죽장(竹杖)과 명아주 지팡이인 려장(藜杖) 또는 려두장(藜頭杖), 그리고 일반적인 지팡이(杖)로 나온다.  
 ① 죽장(竹杖): 제85회: 제갈량은 홀로 대나무 지팡이(竹杖)를 짚고서 작은 연못가에서 물고기가 노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見孔明獨倚竹杖, 在小池邊觀魚。)  
 ② 려장(藜杖) 또는 려두장(藜頭杖): 제1회: (장각은)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지내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은 푸른 눈동자에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손에는 명아주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入山采藥, 遇一老人, 碧眼童顏, 手執藜杖。) 제29회: 손책이 몸을 일으켜 난간에 기대어 내려다보니, 도인(우길于吉) 하나가 학의 깃으로 만든 옷을 입고 손에는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길에 번듯하게 서있었다.(策起身憑欄觀之, 見一道人, 身披鶴氅, 手攜藜杖, 立于當道。) 제89회 회평: 만안(萬安) 계곡에 숨어사는 만안의 은자는 마치 바람결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가 사는 곳은 잣나무와 계곡의 시나와 소나무와 바위가 어우러져 있었고, 그 사람은 대나무로 짠 관(冠)을 쓰고, 명아주 지팡이(藜杖)를 짚고 있었다.(如萬安隱者, 飄飄然有世外之風, 其地則柏澗松岩, 其人則竹冠藜杖。) 제119회: 대신들이 아뢰었다. “올해에 양무현에서 다음과

에서는 형구와 병기만 살펴보기로 한다.

### 3-1) 형구 【대나무 막대기 - 장(杖)】

####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제46회: 주유는 앞에 놓여 있던 책상을 와락 뒤엎으며 ..... 꾸짖으며 소리쳤다. “어서 대나무 막대기 맛을 보여주어라!” 무사들은 황개의 옷을 벗기고는 그를 땅바닥에 엎어놓았다. 그리고 등줄기를 대나무 막대기로 50대 후려쳤다.<sup>33)</sup>

제68회: 조조가 명령을 내렸다. “그놈에게 대나무 막대기 맛을 보여주어라.” 최염은 옥에서 대나무 막대기로 맞아죽고 말았다.<sup>34)</sup>

#### ② 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의 때리는 형구(刑具)이다. 한대(漢代)에는 대나무로 쓰도록 법률화하였으며, 조대(朝代)에 따라 재질은 바뀌었다.

#### ③ 《삼국지》의 기록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키는 2장 남짓 되고, 발자국은 3척 2촌이었으며, 흰 머리칼에 푸른 수염이 나있었으며, 누런 홑옷을 입고 있었으며, 누런 두건을 두르고, 려두장(藜頭杖)을 짚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백성의 왕이다. 이제 너희에게 보답해주노니, 천하는 왕이 바뀌게 될 것이고, 왕이 서자마자 천하는 평화스러워질 것이다.’(大臣奏稱: “當年襄武縣天降一人, 身長二丈餘, 腳跡長三尺二寸, 白髮蒼髯, 著黃單衣, 裹黃巾, 拄藜頭杖, 自稱曰: ‘吾乃民王也。今來報汝, 天下換王, 立見太平。’) 앞의 내용은 《三國志·魏書·三少帝紀·曹奐紀》의 다음 기록을 변형한 것이다. 《三國志·魏書·三少帝紀·曹奐紀》: 魏 元帝 咸熙 2년(265년) 8월 이 달, 양무현(襄武縣)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가 들어왔다. 큰 거인이 나타났는데, 키가 3장 남짓(약 8m)이었고, 발자국은 3척2촌(77.44cm)이었으며, 흰 머리칼에 누런 홑옷을 입고 있었으며, 누런 두건을 쓰고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서, 백성인 왕시(王始)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제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 거인이 려두장을 짚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지팡이를 짚었다고 되어있다. 려장(藜杖)은 명아주(藜)의 쉼 줄기로 만든 지팡이이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명아주 지팡이는 모두 신비스런 인물들이 짚고 있다는 점이다.

③ 일반적인 지팡이(杖): 제28회: 장원 안에서 노인(關定)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더니 관우에게 인사를 올렸다.(莊內一老翁攜杖而出, 與關公施禮。) 제84회: 노인(黃承彥)은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으며 곧바로 돌무더기 진(陣)을 나왔는데, 조금도 막히는 바가 없이, 육손(陸遜)을 산비탈 위까지 보내주었다.(老人策杖徐徐而行, 徑出石陣, 並無所礙, 送至山坡之上.)

33) 제46회: 瑜推翻案桌, ..... 喝教行杖。將黃蓋剝了衣服, 拖翻在地, 打了五十脊杖。

34) 제68회: 操令杖殺崔球在獄中。

제46회의 주유가 황개를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게 했다는 고육책(苦肉策)은 역사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는 소설적 허구이다. 그리고 위의 제68회의 묘사와 관련된 내용을 《三國志·魏書·蔡琰傳》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조조가 명령을 내려 최염을 죽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sup>35)</sup>, 대나무 막대기로 때려죽였다는 묘사는 소설적 허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 대나무 막대기(杖)에 맞아 죽은 사람이 꽤 많았으므로, 위나라 명제는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형벌제도를 줄이도록 명령하였다.

《三國志·魏志·明帝紀》: (위 명제) 청룡 2년(234년), 봄 2월 ..... 18일 계유(癸酉)날, 명제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채찍질은, 관원을 바로잡는 형벌로 삼은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관원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관원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맞아 죽고 있다. 명령하노라. 채찍이나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형벌제도를 줄이도록 하고, 이 내용을 법령에 써넣도록 하라.<sup>36)</sup>

### 3-2) 병기 【막대병기 - 장(杖)】

####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제24회: 전풍은 막대병기(杖)로 땅을 치며 말하였다. “다시는 만나기 어려운 이 좋은 때를 만났으되, 한낱 어린아이의 병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잃게 되다니, .....”<sup>37)</sup>

제120회: 왕준은 ..... 큰 뗏목 수십 개를 만들게 하고는, 그 위에 풀을 묶어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 갑옷을 입히고, 막대병기(杖)를 쥐게 하고는 빙 둘러 세우고, 물살을 따라 흘러가게 놔두었다.<sup>38)</sup>

#### ② 정의

막대병기이다.

#### ③ 《삼국지》의 기록

35) 《三國志·魏書·蔡琰傳》: (조조는) 마침내 최염에게 죽음을 내렸다.(遂賜琰死.)

36) 《三國志·魏志·明帝紀》: 二年春二月 ..... 癸酉, 詔曰: “鞭作官刑, 所以糾慢怠也, 而頃多以無辜死. 其減鞭杖之制, 著于令.”

37) 제24회: 田豐以杖擊地曰: “遭此難遇之時, 乃以嬰兒之病失此機會, .....”

38) 제120회: 浚 ..... 遂造大筏數十方, 上縛草爲人, 披甲執杖, 立于周圍, 順水放下.

제24회의 내용은 《三國志·魏書·袁紹傳》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三國志·魏書·袁紹傳》: “건안 5년(200년), 태조(조조)는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유비를 정벌하러 동쪽으로 쳐들어갔다. 전풍이 원소를 설득하며 (그 틈을 타고) 태조(조조)의 뒤통수를 치자고 하였으나, 원소는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까닭을 들어 거절하였다. 전풍은 막대 병기(杖)를 들어 땅을 치며 말하였다. ‘얻기 어려운 기회를 만났건만, 어린 아이가 병에 걸렸다는 까닭으로 이런 기회를 잃다니, 안타깝구나!’<sup>39)</sup>

④ 그 밖의 전적의 기록

《呂氏春秋·貴卒》: 중산(中山) 사람으로 오구울(吾丘鶻)이라고 부르는 힘이 센 사람이 있었다. 그는 쇠 갑옷을 입고, 쇠로 만든 막대 병기인 철장(鐵杖)을 휘두르며 싸웠는데, 후려치는 것마다 부서지지 않는 것이 없었고, 쳐들어가는 곳마다 함락시키지 못하는 곳이 없었다.<sup>40)</sup>

《漢書·西域傳·烏弋山離國》: 금과 은으로 장(杖)을 꾸민다.<sup>41)</sup>

이에 대하여 안사고(顏師古)가 주에서 이르기를 “장(杖)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병기를 일컫는다.(杖謂所持兵器也.)”라고 하였다.

《宋史·刑法志二》: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면, 강포한 백성들은 잇달아 막대병기(杖)를 쥐고서 부유한 사람을 헐박하여 양곡창고를 터는데, 법에 따라 이들을 죽여서 저자거리에 버려두어야만 한다.<sup>42)</sup>

장(杖)이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병기를 두루 일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9) 《三國志·魏書·袁紹傳》: 建安五年, 太祖自東征備。田豐說紹襲太祖後, 紹辭以子疾, 不許, 豐舉杖擊地曰: 「夫遭難遇之機, 而以嬰兒之病失其會, 惜哉! 」。

40) 《呂氏春秋·貴卒》: 中山之人多力者曰吾丘鶻, 衣鐵甲、操鐵杖以戰, 而所擊無不碎, 所衝無不陷。

41) 《漢書·西域傳·烏弋山離國》: 以金銀飾杖。

42) 《宋史·刑法志二》: 凡歲饑, 強民相率持杖劫人倉廩, 法應棄市 ……。

#### 4) 정(挺)

##### 4-1) 병기 【곧게 뻗은 몽둥이 - 정(挺)】

######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정(挺)에 대해서는 제50회의 모종강의 회평에서 1번 나온다.

제50회 회평: 조조는 앞에서는 典韋를 위하여 뺨을 하였고, 뒤에서는 郭嘉를 위하여 뺨을 하였다. 곡을 한 것은 같지만 곡을 한 까닭은 다르다. 전위를 위하여 하였던 곡은 여러 장사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좌가를 위하여 하였던 곡은 여러 모사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앞의 곡은 상금을 뛰어넘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 뒤의 곡은 때리는 것을 뛰어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간사한 영웅의 눈물이 돈이나 비단처럼 쓰일 뿐만 아니라, 곧게 뻗은 몽둥이(挺)처럼 쓰일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간웅의 간사함이 참으로 간사하기가 귀엽기 짝이 없다.<sup>43)</sup>

###### ② 정의

곧게 뻗은 몽둥이로, 타격 병기이다.

《說文解字·木部》: “정(挺)은 한 줄기 나무줄기이다.(挺, 一枚也.)”

이에 대한 단옥재(段玉裁)의 주에, “길게 곧바로 뻗은 것을 정(挺)이라고 한다. 정(挺)이라고 하는 것은 곧은 것을 말한다.(凡條直者曰挺, 挺之言挺也.)”라고 하였다.

《漢書·吾丘壽王傳》: “그 뒤로, 백성들은 곱방매, 호미, 말채찍, 곧은 몽둥이를 들고서 정부의 관리들을 때리고 공격하였고,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도적떼를 이길 수가 없었다.<sup>44)</sup>”

43) 제50회 회평: 曹操前哭典韋, 而後哭郭嘉, 哭雖同而所以哭則異. 哭典韋之哭, 所以感衆將士也; 哭郭嘉之哭, 所以愧衆謀士也. 前之哭勝似賞, 後之哭勝似打. 不謂奸雄眼淚, 既可作錢帛用, 又可作挺杖用. 奸雄之[奸], 真是奸得可愛.

44) 《漢書·吾丘壽王傳》: 其後, 民以糲鉏箠挺相撻擊, 犯法滋衆, 盜賊不勝.

이에 대한 안사고(顏師古)의 주에, “곰방메는 밭을 가는 농구이다. 채찍은 말 채찍이다. 몽둥이는 큰 막대기이다.(耨, 摩田之器也。篋, 馬槌也。梃, 大杖也。)”라고 하였다.

위의 두 글을 종합해보면, 정(梃)은 곧바르게 쪽 뺨은 큰 몽둥이임을 알 수 있다.

### ③ 그 밖의 전적의 기록

정(梃)은 전국시대 저작인 《孟子》에도 나온다.

《孟子·梁惠王上》: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람을 죽이는데, 곧은 몽둥이로 때려죽이든, 날이 있는 칼로 베어 죽이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sup>45)</sup>

### ④ 타격효과

《新唐書·李嗣業傳》: 때마침 발한나(拔汗那)가 군대를 거느리고 되돌아 오고 있었고, 군량을 실은 수레가 길을 막고 있어서 말을 달려 지나갈 수가 없었다. 이사업(李嗣業)은 적의 추격병이 닥쳐오는 것이 걱정스러웠으므로, 손에 곧게 뺨은 몽둥이(梃)를 들고서 적을 무찌르며 공격하자, 적의 병사와 말들 가운데 고꾸라져 쓰러진 자들이 팔구십에서 백 명에 이르렀다.<sup>46)</sup>

《練兵實紀·練伍法》: 보병이 아래에서 치거나 찌를 적에는 봉(棒)을 아 울러 쓰는데, 바로 정(梃)이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정(梃)을 들더라도 진(秦)과 초(楚)나라의 튼튼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병기를 든 병사를 때려잡을 수 있다.”<sup>47)</sup>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진짜로 정(梃)으로 튼튼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병기를 든 병사를 막아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梃)은 튼튼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병

45) 《孟子·梁惠王》: 孟子對曰: “殺人以梃與刃, 有以異乎?”

46) 《新唐書·李嗣業傳》: 會拔汗那還兵, 輜餉塞道不可勝, 嗣業懼追及, 手梃擊, 人馬斃者數十百。한편, 《漢書·項籍傳》의 ‘數十百人’에 대하여, 顏師古는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다. “수십백인이라고 하는 것은 팔구십에서 백에 이르는 것이다.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다.(數十百人者, 八九十乃至百也。他皆類此。)”

47) 《孟子·梁惠王上》: 왕께서 만약 백성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어,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가볍게 거두시고, ..... 한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몽둥이를 들고 싸우게 하더라도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의 튼튼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병기를 든 병사들을 때려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王如施仁政於民, 省刑罰, 薄稅斂, ..... 可使制梃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

기를 든 병사를 맞설만한 병기는 아니지만, 정(挺)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sup>48)</sup>

위의 글을 종합해 보면, 정(挺)은 적에게 치명상(致命傷)을 입히기는 어렵지만, 여러 적들을 물리치는 데에 있어서는 꽤나 효과적인 타격병기였던 것 같다.

### 5) 봉(棒)

《삼국연의》에서 봉(棒)은 크게 형구, 병기, 의장 3종류로 나온다.

#### 5-1) 형구 【다섯 색깔 몽둥이 - 오색봉(五色棒)】

#####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제1회: (조조는) 처음에 관직을 맡자, 곧바로 다섯 색깔의 몽둥이 열댓 개를 만들어 (낙양성) 동서남북 네 개의 문에다가 걸어놓았다. 금령(禁令)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호족(豪族)이건 힘깨나 쓰는 집안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모두 그 죄를 따졌다.<sup>49)</sup>

##### ② 정의

다섯 색깔을 칠한 몽둥이 형구(刑具)이다.

##### ③ 《삼국지》의 기록

위의 제1회의 묘사는 《三國志·魏志·武帝紀》의 “(조조는) 낙양의 북부위로 임명되었고, (除洛陽北部尉)”에 대한, 裴松之의注가 인용하고 있는 《曹瞞傳》에 근거한 것이다.

《曹瞞傳》: “태조(조조)는 처음에 (낙양洛陽의) 북부위(北部尉)의 관서에 들어가자마자 낙양성의 네 문을 단단히 고치고 잘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다섯 색깔의 몽둥이를 만들어 문의 양 옆에 각각 열댓 자루씩 걸어두게

48) 《練兵實紀·練伍法》: 步下擊刺兼用棒, 卽挺也。孟子曰: “執挺可以撻秦楚之堅甲利兵。” 非眞言挺之可禦堅利也, 蓋言人心齊一, 卽挺非可與堅甲利兵敵者, 用之亦取勝。

49) 제1회: 初到任, 卽設五色棒十餘條於縣之四門, 有犯禁者, 不避豪貴, 皆責之。

하였다. 금령(禁令)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호족(豪族)이건 힘깨나 쓰는 집안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모두 그 몽둥이로 패서 죽였다.<sup>50)</sup>

5-2) 병기 【봉 - 봉(棒)】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제5회: 하후돈은 ..... 어려서부터 창(槍)과 봉(棒)을 잘 다루었고<sup>51)</sup>

② 정의

길쭉한 막대 타격병기이다.

③ 《삼국지》의 기록

하후돈이 봉(棒)을 잘 다루었다는 기록은 없다.

5-3) 병기 【철봉 - 철봉(鐵棒)】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제12회: 장수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 나오더니 싸움을 걸었다. ..... 손에는 철봉(鐵棒)을 들고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하늘을 나는 야차 신 하만이 나라! .....”<sup>52)</sup>

제63회: 유비가 말하였다. “.....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웬 신인(神人)이 한 분이 나타나더니 들고 있던 쇠몽둥이로 내 오른팔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소. .... ”<sup>53)</sup>

50) 《三國志·魏志·武帝紀》: 太祖初入尉廡, 繕治四門。造五色棒, 縣門左右各十餘枚, 有犯禁者, 不避豪彊, 皆棒殺之。

51) 제5회: 夏侯惇 ..... 自小習槍棒。

52) 제12회: 一將步行出戰, ..... 手提鐵棒。大叫: “我乃截天夜叉何曼也。” 야차(夜叉)는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한 어음이다. 불경(佛經)에 나오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귀신으로 성격이 포악하며 사람을 잡아먹는다. 나중에 부처의 가르침을 받아 불법을 지키는 신이 되었는데, 천룡팔부(天龍八部) 무리의 하나가 된다. 그는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비천야차(飛天夜叉)라고 부른다. 절천야차(截天夜叉)의 절(截)자는 비(飛)자를 잘못 베껴 써서 떨어진 오류라고 여겨진다. 절천(截天)의 ‘하늘을 끊는다.’는 뜻이 매우 어색하다. 본고는 비천야차(飛天夜叉)로 번역하였다.

53) 제63회: 玄德曰: “..... 吾夜夢一神人, 手執鐵棒擊吾右臂, ..... ”

② 정의

쇠로 만든 몽둥이이다.

③ 《삼국지》의 기록

《삼국지》에는 철봉(鐵棒)이라는 어휘가 나오지 않는다.

5-4) 병기 【큰 봉 - 대봉(大棒)】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제119회: 종회가 (강유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려 궁 안에 큰 구덩이를 파게 해놓았고, 큰 봉 수천 개를 갖추게 해놓았소. 우리를 따르지 않는 놈들은 때려죽여 물어버리겠소.”<sup>54)</sup>

② 정의

큰 몽둥이이다.

③ 《삼국지》의 기록

《삼국지》에는 대봉(大棒)이라는 어휘가 나오지 않는다.

5-5) 의장 병기 【말발걸이 봉 - 등봉(鎧棒)】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건안 23년(218년) 조조가 40만 대군을 일으켜 몸소 한중(漢中)까지 치러 갔을 때, 조조와 그 가까이에 있는 근위병의 의장(儀仗)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71회에 1번 나온다.

제71회: 조조는 금빛 안장을 얹은 흰 말을 탔고, ..... 왼쪽과 오른쪽에는 무사들은 금과(金瓜)와 은도끼(銀鉞)와 등봉(鎧棒)과 과(戈)와 모(矛)를 들고 벌려서 있었으며,<sup>55)</sup>

② 정의

말 발걸이가 달려 있는 막대 병기이자 의장이다. 등봉(鎧棒)의 등(鎧)은 말에

54) 제119회: 會曰: “吾已令宮中掘一坑, 置大棒數千, 如不從者, 打死坑之。”

55) 제71회: 操騎白馬金鞍, ..... 左右金瓜銀鉞, 鎧棒戈矛…….

오를 때 쓰는 말 발걸이인 등자(鏡子) 즉 마등(馬鏡)을 가리킨다.

③ 《삼국지》의 기록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마등(馬鏡)의 실물은 기원후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기의 것이다. 마등(馬鏡)은 후한(後漢) 삼국(三國) 시기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등봉(鏡棒) 또한 이 시기에는 등장할 수 없는 병기이다. 《삼국지》에는 등(鏡)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위의 제71회의 묘사는 허구이다.

④ 생김새

《宋史·儀衛志六》: 등장(鏡杖)은 노(弩)의 발걸이 자루에 검은 색을 칠하여 만든다. 금동(金銅)으로 등자(鏡子) 및 꾸미개를 만들며, 그 끝에는 자줏빛 실끈을 묶는다.<sup>56)</sup>



[그림 5] 등봉(鏡棒)은 등장(鏡杖)이라고도 부른다. 《삼재도회(三才圖會)》

격투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걸모양에 치중하고 있어서, 격투보다는 의장에 목적을 둔 병기임을 알 수 있다.

⑤ 그 밖의 전적의 기록

고려에서도 등장(鏡杖)을 의장으로 쓴 기록이 있다. 매우 중요한 의식에 쓰인 의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宋 徐兢《宣和奉使高麗圖經》권13: 등장(鏡杖)은 국왕이 (황제의) 조서를 받을 때마다 설치하는데, 위는 말등자를 만들고, 대[竿]에는 붉은 칠을 하였다. 사자가 앞으로 나갈 때 천우위군(千牛衛軍) 수십 인이 이를 잡고, 왕의 행차에는 앞에 있는데, 등자는 도금으로 장식하였으며, 나머지

56) 《元史·輿服志二》: 鏡杖, 黑漆弩柄也。以金銅爲鏡及飾, 其木紫絲條繫之。

제도는 모두 쇠로 만들었다.<sup>57)</sup>

## 6) 곤(棍)

### 6-1) 형구 또는 병기 【몽둥이 - 곤(棍)】

####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모두 1번 나온다.

제46회: 주유는 먼저 곁에 있던 무사들에게 소리쳤다. “갑령을 몽둥이(棒)로 흠뻑 두들겨 패서 끌어내도록 하라.” ……무사들을 꾸짖으며 소리쳤다. “(황개에게) 몽둥이(杖) 맛을 보여주어라.” …… “네놈이 그래도 나를 깔볼 테냐! 나머지 몽둥이(棍) 50대는 잠시 적어두겠다! …… ”<sup>58)</sup>

《삼국연의》에서 주유가 황개를 매질하는 고육책(苦肉策)에 관한 묘사는 소설적 허구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밝혔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삼국연의》의 이 짧은 묘사 가운데, 봉(棒)과 장(杖)과 곤(棍)이 거의 구분 없이 함께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 ② 정의

몽둥이이다. 명(明) 이후에는 대부분 곤(棍)이라고 불렀다.

#### ③ 《삼국지》의 기록

《삼국지》에는 곤(棍)이라는 어휘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 ④ 생김새와 사용법

명나라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단병장용설(紀效新書·短兵長用說)》: “대저 차(釵)·파(鈹)·곤(棍)·창(槍)·언월도(偃月刀)·구겸(鈎鎌)은 모두 짧은 병기(短兵)이다. …… 곤(棍)은 육칠 척(1.92미터-2.24미터)<sup>59)</sup>을 넘지 않으며, 또한 두 끄트머리를 쓰려면, 두 손으로 쥐는데, 남은 곤의 머리가 1척(32센티미터) 남짓을 넘지 않는다.<sup>60)</sup>

57) 宋 徐兢《宣和奉使高麗圖經》권13: 鎧杖之設, 國王受詔則有之, 上爲馬鎧, 其竿丹漆. 使者前驅. 千牛衛軍數十人執之. 王行則在前. 而鎧以塗金爲飾. 餘制. 悉以鐵爲之.

58) 제46회: 先此左右將甘寧亂棒打出 …… 喝教行杖 …… “汝敢小覷我耶! 且記下五十棍. …… ”

59) 명대 영조척(營造尺) 1척(尺)=32센티미터.

곤은 단병기에 속하며 그 길이는 약 2미터쯤이었으며, 두 손으로 쥐고 앞 뒤 끝을 모두 쓰는 병기임을 알 수 있다.

⑤ 병기로서의 가치

명나라 유대유(俞大猷: 1504-1580)의 《검경(劍經)》: “곤(棍)을 쓰는 것은 마치 《사서》 전체를 읽는 것과 같고, 갈고리, 도, 창, 파는 《사서》의 하나하나를 읽는 것과 같다. 《사서》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육경》의 이치 또한 환히 이해하게 된다. 곤을 잘 다룰 수 있으면, 다른 날카로운 병기들을 다루는 방법은 이에 따라서 얻어지게 된다.”<sup>61)</sup>

명나라 하량신(何良臣)의 《陣紀·技用》: “무예를 배우는 데에는 먼저 주먹 쓰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곤(棍)을 쓰는 법을 배운다. 주먹 쓰는 법과 곤(棍)을 쓰는 법을 이해하게 되면, 도(刀)나 창(槍)과 같은 다른 여러 병기들을 쓰는 기술들은 아주 쉽고도 쉬울 따름이다. 따라서 주먹과 곤(棍)을 쓰는 법은 여러 무예의 원천이 된다.

곤술(棍術)이 모든 무예 훈련의 기초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6-2) 형구 또는 병기 【큰 몽둥이 - 대곤(大棍)】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제88회: (맹획은) 무사들에게 소리를 질러 동도나(董荼那)를 큰 몽둥이로 100대를 때리게 한 다음, 그의 영채로 돌려보냈다.<sup>62)</sup>

② 정의

큰 몽둥이이다.

③ 《삼국지》의 기록

곤(棍)이라는 어휘 자체가 《삼국지》에 나오지 않는다. 88회의 거의 모든 묘사

60) 《紀效新書·短兵長用說》: 夫釵、鈚、棍、槍、偃月刀、鉤、鎌, 皆短兵也。…… 一棍不過六七尺, 又欲兩頭雙使而兩手握開, 所剩棍頭不過尺餘。

61) 《劍經》: 用棍如讀《四書》, 鉤、刀、鎗、鈚如各習一經, 《四書》既明, 《六經》之理亦明矣。若能棍, 則各利器之法從此得矣。

62) 제88회: 叱武士將董荼那打了一百大棍, 放歸本寨。

는 소설적 허구이며, 동도나(董荼那)도 허구의 인물이다.

### 7) 오(杼)

#### 7-1) 형구 또는 의장 병기 【금칠한 몽둥이 - 금오(金杼)】

#####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삼국연의》안에서 금오(金杼)는 병기로 서 제69회에 1번 묘사되어 있다.

제69회: 드디어 1월 15일 대보름날 밤이 되었다. …… 참으로 금오(金杼)도 밤길을 막지 않았고, 옥으로 만든 물시계(玉漏)도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그치지 않았다.<sup>63)</sup>

##### ② 정의 및 풀이

형구 또는 의장용 몽둥이다. 오(杼)는 ‘어(御) 즉 ‘막는다.’는 뜻이다. 오(杼)는 일반적으로 시종이 손에 쥐고 다니면서 모시는 이를 지킨다. 청(淸)나라 때까지 의장(儀仗)으로 쓰였다.

제69회의 묘사는, 당(唐)나라 소미도(蘇味道)의 《정월15야(正月十五夜)》詩를 응용한 표현이다.



[그림 6] 금오(金杼)는 아마 오장(杼杖)의 앞뒤에 금박을 입힌 병기였을 것이다.

“금오(金杼)도 밤길을 막지 않았고, 옥으로 만든 물시계(玉漏)도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그치지 않았다.(金杼不禁夜, 玉漏莫相催。)”

여기에서의 금오(金杼)는 1차적으로 몽둥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뒤 구의 물시계(玉漏)와 대구를 이루려면, 사람보다는 물건이 더 어울리기 때

63) 제69회: 至正月十五夜 …… 眞個金杼不禁, 玉漏無催!

문이다. 하지만, 이 시에서의 금오(金吾)와 물시계(玉漏)가 의인화 되고 있으므로, 금오(金吾)는 관직 이름이 되기도 한다. 위 시는, 당나라 경성의 경위를 맡아야간 통행을 금지시키는 금오(金吾)도, 정월 대보름에는 야간 통행금지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나라 때 대보름날 야간 통행금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 기록이 있다.

唐 韋述의 《西都雜記》: “서도 장안(長安)의 길거리에는 금오(金吾)라는 관직이 있어서 날이 어두워지면 돌아다니며 소리쳐서 밤에 (백성들이) 나다니는 것을 금지시킨다. 오직 정월 대보름 밤이 되면, 황제가 칙명을 내려서 금오가 통행금지 단속하는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그 기간은 대보름 앞뒤로 하루씩해서 모두 사흘간이다.”<sup>64)</sup>

### ③ 《삼국지》의 기록

《삼국지》안에서는 관직 이름인 집금오(執金吾)만 나오고, 병기인 금오(金吾)는 나오지 않는다.

### ④ 생김새

《漢書·百官公卿表上》에 대한 顏師古 주에 따르면, 금오(金吾)는 새의 이름이라고 하며, 그 새의 생김새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漢書·百官公卿表上》: “中尉는 …… 武帝 太初 元년에 그 이름을 바꾸어 執金吾라고 하였다.”<sup>65)</sup>

이에 대하여 應劭가 주를 달아 말하기를: “吾라고 하는 것은 막는 것(禦)이다. 兵器를 손에 쥐고 있다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막아내는 것이다.”<sup>66)</sup>라고 하였다. 顏師古가 말하기를, “金吾는 새의 이름으로 주로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 天子가 밖으로 나갈 적에는 그 일을 맡은 관원이 앞에서 길을 트면서 비상사태를

64) 唐 韋述의 《西都雜記》: 西都京城街衢, 有金吾曉暝傳呼, 以禁夜行; 惟正月十五日夜, 敕許金吾弛禁, 前後各一日。

65) 《漢書·百官公卿表上》: 中尉……武帝太初元年更名執金吾。

66) 應劭注: “吾者, 禦也, 掌執金革以禦非常。”

막아낸다. 따라서 이 새의 형상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관직 이름이 된 것이다.”<sup>67)</sup>라고 하였다.

썸나라 崔豹의 《古今注·輿服》에 따르면, 銅으로 그 몽둥이를 만드는데, 황금으로 두 꼬트머리를 칠하기 때문에 金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썸나라 崔豹의 《古今注·輿服》: “수레 바퀴살은 몽둥이이다. 漢나라 때에 ‘執金桴’라는 관직이름이 있었는데, 金桴라고 하는 것 또한 몽둥이이다. 銅으로 그 몽둥이를 만드는데, 황금으로 두 꼬트머리를 칠하기 때문에 金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御史大夫와 司隸의 校尉 또한 이 몽둥이를 든다. 禦史와 校尉와 郡守와 都尉와 縣長의 부류도 모두 나무로 몽둥이(桴)를 만든다. 몽둥이를 수레에 끼우는데, 따라서 수레 바퀴살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또 다른 풀이로는 그 생김새가 수레 바퀴살(輻)을 닮았기 때문에 수레 바퀴살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sup>68)</sup>

⑤ 관직으로서의 집금오(執金吾)

금오(金吾)는 집금오(執金吾)라는 관직으로 제9회에 원문과 단평에 모두 2번, 제23회에 1번 나온다.

제9회: (동탁은) 이숙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내가 황제가 되면, 너를 반드시 집금오로 삼겠노라.”<sup>69)</sup> 이에 대한 모종강(毛宗崗)의 단평(短評)으로 “또 집금오를 시켜준다고 하는구나.(又許一個執金吾.)”가 있다.

제23회: (조조는) 가후에게 집금오(執金吾)의 관직을 내렸다.<sup>70)</sup>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동탁이 이숙에게 집금오를 시켜주겠다고 말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제9회의 묘사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구이다. 《삼국지·위서·가후전》에 “조조는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 가후를 집금오로 삼았고(表詔爲執金吾)”라고 하였으니, 제23회의 묘사는 역사적 사실이다.

67) 顏師古注: “金吾, 鳥名也, 主辟不祥. 天子出行, 職主先導, 以禦非常, 故執此鳥之象, 因以名官.”

68) 晉 崔豹《古今注·輿服》: “車輻, 棒也. 漢朝執金吾, 金吾, 亦棒也. 以銅爲之, 黃金塗兩末, 謂爲金吾. 御史大夫, 司隸校尉亦得執焉. 禦史, 校尉, 郡守, 都尉, 縣長之類, 皆以木爲吾焉. 用以夾車, 故謂之車輻. 一曰形似輻, 故謂之車輻也.”

69) 제9회: 顧譚李肅曰: “吾爲帝, 汝當爲執金吾.”

70) 제23회: 封賈詡爲執金吾使.

《후한서·백관지》에는 관직으로서의 집금오(執金吾)가 맡는 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후한서·백관지》: 집금오(執金吾)는 한 사람이고, 관질(官秩)은 중(中) 2,000석이다. 본주에 이르기를 궁정 밖 주위의 뜻밖의 사태나 화재와 수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맡는다. 매달 궁정 밖을 세 바퀴 돌며, 병기를 맡아본다. 집금오의 오(吾)는 막아낸다는 뜻이다. 그 밑에는 승(丞) 한 사람을 두는데, 그의 관질은 비(比) 1,000석이다. 붉은 기병이 200명이다. 기병은 관질이 없으며, 리(吏)의 식봉(食奉)과 같다.<sup>71)</sup>

8) 저(杵)

8-1) 병기 【공이 - 저(杵)】

① 《삼국연의》에서의 묘사

저(杵)는 제37회의 끼어있는 시에 1번 나온다.

제37회: 목야의 들에서 한 바탕 싸움으로, 핏물은 공이를 떠내려 보냈고.<sup>72)</sup>

② 정의

몽둥이 병기이다.

③ 《삼국지》의 기록

《삼국지》에는杵리는 병기가 나오지 않는다.

④ 풀이

제37회의 묘사는 《尚書·武成》의 다음 내용을 응용한 것이다.



[그림 7] 저봉(杵棒) 《武經總要》

71) 《後漢書·百官志》: 執金吾一人, 中二千石。本注曰: 掌宮外戒司非常水火之事。月三繞行宮外, 及主兵器。吾猶禦也。丞一人, 比千石。緹騎二百人。本注曰: 無秩, 比吏食奉。

72) 제37회: 牧野一戰血流杵。

“(商나라의 군사들이 주나라의 군사들과 맞닥뜨리자, 맨 앞에 섰던 商나라의 군사들이 달아나려고 뒤돌아서 길을 트려고) 뒤쪽에 있던 같은 편 군사들을 공격하면서 달아나니, 피가 물줄기처럼 흘러 杵가 등등 떠다녔다.”<sup>73)</sup>

⑤ 생김새

그 생김새가 쌀 빵은 절굿공이나 다듬이 방망이나 흙을 다지는 공이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宋 曾公亮 《武經總要·器圖》: 단단하고 무거운 나무로 만드는데, 길이는 4척(124.8cm)에서 5척(156cm)<sup>74)</sup> 사이이다. 다른 이름으로 봉(棒)·윤(楡)·저(杵)·간(桴)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몽둥이 위에다가 못을 박아서 늑대이빨이 돌아난 것 같은 것을 일컬어 낭야봉(狼牙棒)이라고 부른다. 아래와 위가 모두 큰 것이 저(杵)이다.<sup>75)</sup>

明나라 正德 年間(1506년-1521년) 《武經總要》에 杵棒의 그림이 있는데 杵의 원래 모습은 이와 비슷할 것이다.

### 3. 결론

본고는 《삼국연의》에 나오는 막대형 타격 형구와 병기를 고찰하였다. 고찰한 형구와 병기는 다음과 같다. 편(鞭)·류조편(柳條鞭)·철편(鐵鞭)·강편(鋼鞭)·사릉철간(四楞鐵錘)·장(杖)·정(挺)·봉(棒)·오색봉(五色棒)·철봉(鐵棒)·대봉(大棒)·등봉(鎗棒)·곤(棍)·대곤(大棍). 그 가운데 편(鞭)·장(杖)·오색봉(五色棒) 등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류조편(柳條鞭)은 역사서인 《삼국지》에는 대나무 막대기인 장(杖)이 바뀐 것이었고, 철편(鐵鞭)·강편(鋼

73) 《尚書·武成》: “攻于後以北, 血流漂杵.”

74) 宋나라 때 1尺=31.2cm.

75) 宋 曾公亮 《武經總要·器圖》: “取堅重木爲之, 長四五尺. 異名有四: 曰棒、曰楡、曰杵、曰桴. …… 植釘於上, 如狼牙者, 曰狼牙棒. 本末均大者, 爲杵”

鞭)·사릉철간(四楞鐵鑄)·등봉(鎧棒) 등은 송대(宋代)에 이르러서야 출현하는 병기였으며, 곤(棍)과 대곤(大棍)은 명대(明代)에 막대형 병기를 일컫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된 어휘라는 것이 밝혀졌다. 본고에서 다룬 장(杖)·정(挺)·봉(棒)·곤(棍)·오(杵)·저(杵)와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봉(檣), 과(槲)는 모두 막대 형구이자 병기이다. 이들 병기는 비록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형태와 목적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막대형 형구와 병기를 다양한 어휘로 일컫게 된 것은, 막대형 형구와 병기가 매우 기본적인 형구와 병기로서, 오랜 시기 동안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본고는 《삼국연의》에 나오는 막대형 타격 형구와 병기들을 처음으로 문학적·역사적·병기학적·과학적·문화적·수량적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정리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 〈參考文獻〉

- [明] 羅貫中 著, 毛宗崗 評改, 『三國演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漢] 司馬遷 撰,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宋] 范曄 撰, [唐] 李賢 等注,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5.  
 [晉] 陳壽, 『三國志』, 北京: 中華書局, 1959.  
 [元] 脫脫,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77.  
 [清] 馮雲鵬, 『金石索』,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盧弼 撰, 『三國志集解』,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張舜徽 主編, 『三國志辭典』,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2.  
 陸錫興 主編, 『中國古代器物大詞典-兵器·形具』,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2.  
 [明] 宋應星, 『天工開物』,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4.  
 楊泓, 『中國古代兵器論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  
 孫機 著,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홍윤기, 『三國演義』界橋之戰의 戰術 描寫에 관한 고찰, 『中國語文論叢』 51輯.

〈中文提要〉

本稿是从形象的、历史的、科学的、战术的、文化的、数理的角度，对《三国演义》里出现的棍棒类打击刑具及兵器进行了考察研究。其目的在於取得对《三国演义》的更丰富的、更正确的理解。

研究步骤如下：一、首先从《三国演义》里抽出所有棍棒类打击刑具及兵器而进行分类。二、调查《三国演义》对那些棍棒类打击刑具及兵器的描写。三、考察那些棍棒类打击刑具及兵器是否存在於《三国志》的记录上。四、考察那些棍棒类打击刑具及兵器的特性。五、根据历史记录及考古文物资料，以现代度量衡单位显示那些棍棒类打击刑具及兵器的长短与重量等。

《三国演义》里出现的棍棒类打击刑具及兵器有如下：鞭、柳条鞭、铁鞭、钢鞭、四楞铁镗、杖、槌、棒、五色棒、铁棒、大棒、镗棒、棍、大棍、金吾、杵。

在《三国演义》里出现的棍棒类打击刑具及兵器当中，鞭、杖、五色棒等是有历史根据的。但《三国演义》的“柳条鞭”是把《三国志》里的“杖”变造过来的。铁鞭、钢鞭、四楞铁镗、镗棒是到了宋朝才出现的兵器，并且棍、大棍的名称是从明朝以後才多起来的。由此可知：《三国演义》里出现的许多棍棒类打击刑具及兵器是小说家把後代刑具及兵器拿过来再安排於三国时期人物身上的。

本稿里涉及的杖、槌、棒、棍、吾、杵与未涉及的楸、槌都是屬於棍棒类打击刑具和兵器里边的。这些许多刑具及兵器虽然具有着不同名称，然而它们在外形上与制作目的上几乎没有甚大差异。大同小异相仿的棍棒刑具及兵器之所以具有那麽多的不同名称，很可能是因为它们作为基本的打击刑具与兵器，在漫长期间中和在广泛地区里被使用的。

本稿的研究意义在於最初研究考察了《三国演义》的所有棍棒类打击刑具及兵器。

关键词：叁国演义、叁国志、兵器、铁鞭、铁简、金吾、四楞铁镗、五色棒、镗棒、金吾、杵。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3년 1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3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